

허영호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12대 회장 선임

“나눔, 사회가 함께 살아가는 힘으로 확산시킬 것”

전남 1호 3대 나눔명문가…지역 봉사·나눔 확산 앞장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12대 회장으로 허영호 미립산업개발주 대표이사(사진)가 선임됐다.

전남 사랑의열매는 13일 운영위원회와 중앙회 이사회를 통해 허 선임회장의 선임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허 회장의 임기는 오는 17일부터 3년이다.

허 회장은 2001년부터 현재까지 미립산업개발주와 민은산업개발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지역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했다.

또 지역사회 봉사활동과 나눔 확산에도 앞장서며, 2010년부터 기우리 봉사회 사무국장과 부회장, 전남대학교 총

동창회 상임부회장으로 활동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해왔다.

이외에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주북구협의회 지회장(2013~2019), 전남 담양군장학회 이사(2014~현재), 전남신용보증재단 자문위원(2017~현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2019~현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사회 발전과 국민 소통을 위한 역할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2014년 전남 사랑의열매 아너사이버티 회원으로 가입해 전남 지역 나눔화를 선도했다. 또 2020년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패밀리 아너 가입



2021년 아너 소사이터티 회원 대표로서 신규 회원 확충과 나눔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했다.

허영호 선임회장은 개인의 나눔을 넘어 전남 1호 나눔명문가(3대 아너 패밀

리)를 완성한 주인공으로, 부인 고귀란씨(전남 27호), 딸 허고은양(전남 77호), 아들 허민석군(전남 90호), 부친 고허련씨(전남 125호), 모친 국순례씨(전남 126호)까지 가족 모두가 고액기부에 동참하며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허영호 회장은 “개인의 영광이 아닌 지역사회의 부름이자 책임으로 받아들이겠다”면서 “앞서가기보다 함께 걷는 자세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나눔을 단순한 기부가 아닌 우리 사회가 함께 살아가는 힘으로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 사랑의열매는 오는 16일 사옥 4층 대회의실에서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한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마한문화유산 세계유산 등재 학술대회 ‘성료’

가치 조명·동향·전략 등 공유
등재 가능성·추진 방안 논의

전남 마한문화유산의 세계유산적 가치를 조명하는 ‘전남 마한문화유산 세계유산 등재 국제학술대회’가 최근 목포대학교 70주년 기념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전남도와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가 공동 주최하고 전남문화재단이 주관한 이번 학술대회에는 유네스코 관계기관, 국가유산청, 국내·외 대학 및 연구자들이 참여했다.

기조 강연은 캐리야 짜우 손 캄보디아 국제박물관협의회(ICOM) 위원장이 ‘캄보디아 고대 유적과 관련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의 최신 동향과 국제협력’을, 배기동 전 국립중앙박물관장이 ‘한반도 영산강유역 마한문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전략’을 주제로 진행됐다.

주제 발표에서는 첫째 날에 마한 고분군의 세계유산적 가치, 둘째 날에 마한 생



전남 마한문화유산의 세계유산적 가치를 조명하는 ‘전남 마한문화유산 세계유산 등재 국제학술대회’가 최근 목포대학교 70주년 기념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산·생활·제의유적의 세계유산적 가치가 각각 다뤄졌다. 전문가들의 발표에서는 마한 고분군의 축조기법과 다종(多葬)(전용호 국가유산청 학예연구관), 마한 석실고분군(최영주 선문대 교수), 마한 웅관고분군(오동선 국립순천대 교수),

문헌을 통해 본 전남 마한(박해연 초당대 교수), 마한 생산유적(김주호 국립나주 문화유산연구소 학예연구사), 마한 생활·제의유적(이동희 인제대 교수), 동아시아 고분 유산으로 본 전남 마한의 비교사례(홍보식 국립광주대 교수)를 발표해

전남 마한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조명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해외동계 사례로는 중국 고대 유적 세계유산 등재 최신 사례(명차오 중국 절강성고고학연구소 책임연구원), 일본 모즈·후루이치 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 사례(하시모토 시게루 와세다대 교수)를 공유하여 마한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구체적 방향성을 제시했다.

종합토론은 호남고고학회 이정호 회장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신희권 사무총장이 각각 좌장을 맡아 이뤄졌다.

김은영 전남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학술대회는 전남 마한문화유산의 세계유산적 가치와 등재 가능성에 대한 집중 논의로 향후 세계유산 등재 추진의 중요한 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재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배우 정보석, 나주시에 ‘고향사랑기부금’

3년 연속 기탁…2년 연속 ‘나주영산강축제’ 홍보대사로

‘나주영산강축제’의 성공 개최를 위해 지난해부터 2년 연속 나주영산강축제 홍보대사로 활약하고 있는 국민배우 정보석씨가 고향 발전을 위해 3년째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했다.

나주 반남면 출신인 정보석 배우는 지난 12일 영산강정원에서 열린 2025 나주영산강축제 폐막식에서 윤병태 나주시장에게 성금을 기탁했다.

지난 2023년, 2024년에 이어 3년째 이어지는 고향사랑이다.

정보석씨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축제 홍보대사로 참여해 축제 기간 5일 동안 매일 현장에 머물면서 시민과 관광객을 직접 만나 소통하는 등 축제 홍보에 구슬땀을 흘렸으며, 아들 정우주씨는 ‘우주제빵소’ 부스를 운영하기도 했다.

특히 ‘우주제빵소’ 부스 수익금 일부를 나주시에 기부해 관내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될 예정이다.

정보석씨는 “고향사랑기부제는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고향 나주의 다양한 특산물을 접할 수 있는 정겨운 제도다”며 “기부금은 지역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고향



발전을 위해 활용되는 만큼 많은 분의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국민배우 정보석씨가 고향 발전을 위해 2년 연속 홍보대사로 함께해 주시고 3년 연속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축제를 넘어 문화와 예술 분야에서도 다양한 교류와 협력을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나주=조환진 기자 pose007@gwangnam.co.kr



장흥군은 퇴원 후 가정에서 생활하는 재가 의료급여 대상자에게 최근 세탁기를 지원했다.

재가 의료급여 대상자에 필수 가전 지원

장흥군, 맞춤형 복지 추진…일상복귀 지원 강화

장흥군은 퇴원 후 가정에서 생활하는 재가 의료급여 대상자에게 최근 세탁기를 지원했다.

군은 사전에 대상자의 경제적 어려움과 생활환경의 취약 정도를 꼼꼼히 조사해 지원이 가장 시급한 가정을 선별했다.

이와 함께 건강상태 점검, 복지 서비스 연계 등 다양한 후속 지원 활동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장흥군 관계자는 “재가 의료급여 대상자들이 퇴원 후에도 병원에서 더 안정된 가정 환경에서 생활하며, 원활하게 사회

에 복귀할 수 있도록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통해 군민들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재가 의료급여사업은 의료급여 수급자가 30일 이상 장기 입원 후 퇴원 시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장흥군은 앞으로도 가정방문 상담과 생활환경 점검을 강화하고, 수급자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복지 사각대 해소와 생활 안정에 힘쓸 계획이다.

장흥=정명수 기자 jms050311@gwangnam.co.kr



(재) 2026여수세계세계섬박람회조직위원회는 최근 여수시청 시장실에서 여수 농우회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입장권 5100만원 규모의 사전 구매 약정을 체결했다.

여수 농우회, 섬박람회 입장권 사전 구매 약정

지역 농업기관 한미음 응원…NH농협은행 2년 연속 후원

(재) 2026여수세계세계섬박람회조직위원회는 최근 여수시청 시장실에서 여수 농우회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입장권 5100만원 규모의 사전 구매 약정을 체결했다.

여수 농우회는 NH농협은행여수지부, 여천농협, 여수농협, 여수축협, 여수원예농협, 여수시산림조합 등 농업 관련 기관들이 연대한 협의체로, 지역 농업인과 주민과의 긴밀한 협력과 상생을 바탕으로 지역외와 발전을 선도하는 대표적 단체이다.

이번 약정에는 NH농협은행여수지부(지부장 백희순), 여천농협(조합장 박상근), 여수농협(조합장 박현영), 여수축협(조합장 박계수), 여수원예농협(조합장 김용진), 여수시산림조합(조합장 정영관) 등 6개 기관이 참여했다. 특히 주거래 은행인 NH농협은행은 지난해 2억원을 공식후원하고 입장권 1만매(9000만원)를 구

매한 데 이어 올해도 1000만원 규모의 입장권 구매를 약속했다.

조직위원장인 정기명 여수시장은 “여수 농우회의 입장권 구매약정은 지역 기관들이 한뜻으로 섬박람회를 지지하는 뜻깊은 사례다”며 “특히 NH농협은행의 지속적인 후원은 지역사회 동창 분위기를 확산시킬 것이다”고 말했다.

여수 농우회 관계자도 “이번 구매 약정은 단순한 입장권 구매를 넘어 지역사회가 하나돼 섬박람회를 응원하는 실천의 표현이다”며 “앞으로도 기관별 지원과 홍보를 통해 섬박람회의 성공 개최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6여수세계세계섬박람회는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를 주제로, 2026년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여수 돌산읍 진도자구, 금오도·개도, 여수세계섬박람회장에서 열린 예정이다.

여수=송원기 기자 swg3318@gwangnam.co.kr

전남사회서비스원, 전통시장 장보기 캠페인

소상공인 판로 확대·지역경제 회복 기여

전남도사회서비스원은 최근 목포동부시장과 나주영산포 품물시장에서 ‘이웃과 함께하는 착한 장보기, 따뜻한 지역경제’를 위한 ‘전통시장 친환경 장보기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 전통시장을 찾는 소비를 통해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와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하고, 동시에 공공기관으로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실천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임직원들은 온누리상품권 등을 활용해 전통시장 내 제수용품과 생활용품을 직접 구매하며 상인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대화용 장바구니 사용, 비닐·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등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 활동도 병행하여 시장을 찾은 시민들과 함께 ‘지속가능한 생활 실천’의 의



미를 공유했다.

전남도사회서비스원 관계자는 “전통시장은 단순한 소비 공간을 넘어 이웃과 정이 오가는 생활의 터전”이라며 “전남도사회서비스원은 지역경제와 상생하고 친환경 가치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전남도사회서비스원은 지역경제활성화와 ESG 경영 확산을 위해 매년 명절을 앞두고 도내 전통시장을 찾아 친환경 장보기 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장보기 행사와 친환경 소비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현규 기자 gnnws1@gwangnam.co.kr



서구 세근대, 대한민국 평생학습 ‘최우수상’ 광주 서구(구청장 김이강)의 대표 평생학습 브랜드 ‘세상에서 가장 큰 대학, 서구’가 제22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에서 최우수상인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했다.



광주교통공사 조직문 사장과 김형일 노동조합위원장, 하나은행 호남 영업 그룹 우승구 부행장은 최근 광주시 서구 가족센터와 첨단2동 봉산 경로당에 총 5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광주교통공사-하나은행, 노·사·민 사랑 나눔

서구 가족센터 등에 500만원 후원금 전달

광주교통공사 조직문 사장과 김형일 노동조합위원장, 하나은행 호남 영업 그룹 우승구 부행장은 최근 지역 상생과 사회 각기 실현을 위한 ‘가을 맞이 노사민 사랑 나눔 행사’를 갖고, 광주시 서구 가족센터와 첨단2동 봉산 경로당에 총 500

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공사 조직문 사장은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해 다양한 나눔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라며 “상생과 나눔 정신을 통해 광주를 대표하는 모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